

■ 그림 여행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있는 네덜란드 설경
(Dutch Snow Scene with Skaters c. 1695)

안 그리피어 (Jan Griffier 1652 - 1718)

캔버스에 유채 영국 요크 머튼트 어드벤처러스 홀

한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2-3도 정도 내려가 수백 년 동안 낮은 기온이 지속된 적이 있었다.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 부르며 역사적으로 서기 1300년부터 1870년경까지를 이른다. 약 600년 동안의 소빙하기를 지나는 동안 지구는 얼어붙었다. 폭설이 계속되고 강과 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였다. 근대적 측량 기

록이 가능해진 17세기 중후반에는 기온 저하가 극에 달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술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400년 이후의 유럽 사실주의 풍경화 1만 2천 점을 분석한 결과, 소빙하기 이전의 풍경화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묘사된 그림이 65퍼센트 가량 되었지만 소빙하기가 시작된 후에 그려진 그림에서는 흐리고 어두운 날씨를 묘사한 풍경화가 80퍼센트에 육박했다고 한다.

17세기에 그려진 유럽 풍경화에는 유독 얼어붙은 강이 자주 등장한다. 1683년에 런던 템스강이 얼어붙어 그림으로 남은 예가 유명하고 특히 네덜란드 황금기 시대 화가들이 얼어붙은 강에서 사람들이 스케이트 타는 겨울 풍경을 많이 그렸다.

네덜란드 화가 얀 그리피어가 그린 이 그림 속에도 얼음세상처럼 변해 버린 강변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하늘은 어둡고 앙상한 나무들도 눈 속에 하얗게 변해 버렸다. 건물마저 얼어붙은 듯 마을 모습도 을씨년스럽기만한데 선명한 밝은 색 옷을 입고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이 풍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림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얼어붙은 죽음의 세상 같았을 것이다. 추위 속에서도 삶을 즐기는 씩씩하고 낙천적인 사람들 때문에 흰색과 핑크색이 어울리는 고운 겨울풍경이 되었다. 흑독한 겨울 풍경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카드 같은 예쁜 설경이 되었다.

김 동백

■ 신간

남겨진 이름들



제3회 박상룡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다가갈수록 자신만의 웅대한 고독 속에서 우주와 내통하는 듯한 내밀한 결기에 경외감이 들 정도"라는 찬탄을 받으며 안운 소설세계의 시작을 알렸다. 그동안 발표한 단편소설들에서 떠난 이들을 향한 온기어린 애도로 독자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진동을 일으켜온 작가는, 그 발원이 된 이 첫 장편소설에서 현실과 허구, 언어와 신체의 경계를 초월하여 삶과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여준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안운 지음 | 문학동네 펴냄 | 216쪽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연말파티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요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